

보도시점 : 2024. 11. 28.(목) 11:00 이후(11. 28.(목) 석간) / 배포 : 2024. 11. 28.(목)

체코 직항 증편 및 노선 다양화 등 국제선 확대 ... “국민 여행 편의성 높였다”

- 27일 15개 노선 운수권 배분... 체코(주4회→주7회)·우즈벡(주10회→주12회) 증편, 인천-구이린(계림) 주7회 운항 등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1월 27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5개 노선*의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다.

* 한-체코, 인천-타슈켄트(우즈베키스탄), 인천-구이린(중국) 등 경합노선 3개
한-그리스, 서울-유럽 북구3국, 한-마닐라, 한-카자흐스탄 등 비경합노선 12개

○ 이번 배분으로 약 26년 만에 체코 직항이 주7회로 증편되고, 중국 계림 노선도 재개된다. 또한,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하늘길이 넓어지며, 국제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.

□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3개 노선은 「운수권 배분규칙」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.

○ (체코 직항 26년 만에 대폭 증편) 지난 7월 원전 협력 및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체코와의 항공회담에서 주4회에서 주7회로 운수권이 증대된 한-체코 노선은 그간 대한항공이 주4회 단독 운항 중이었으나, 아시아나항공에 증대된 주3회가 배분되었다.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·문화 협력이 확대되며 상호 간 여행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(우즈베키스탄 노선 증편)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하늘길도 증편된다. 지난 9월 항공회담으로 인천-타슈켄트 노선을 주2회 증대(주10회→주12회)하였고,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1회씩 배분받았다. 이로써 두 항공사는 상반기 각 3회씩 배분받은 것에 더하여 주4회씩 보유*하게 되었으며 내년 중 취항을 목표로 한다.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아시아나항공 주4회 운항 중, 제주항공 주4회, 티웨이항공 주4회 등 총 주12회

- (인천-구이린(계림) 노선 재개) ‘23년 연말 부로 단항되었던 인천-구이린(계림) 노선도 재개한다. LCC 2개 항공사*가 신규 진입하여 주7회 운항한다. 자연 관광 수요가 높은 계림 노선의 재개는 국민 여행 편의를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환승객 유치*에도 기여할 전망이다.

* 제주항공 주4회, 진에어 주3회 등 총 주7회

** 현재 日 - 구이린 운항 중인 노선이 없어, 日 - 韓 - 구이린 간 환승객 유치 가능

- 그 밖에도, 1개 항공사만 신청한 비경합노선 중 그간 항공사의 진입이 없어 정부가 장기 보유 중이던 그리스, 유럽 북구 3국(덴마크·스웨덴·노르웨이)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배분되어 다양한 유럽 신규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.

- 지난 7월 국내 지방공항 - 마닐라 직항 자유화와 함께 대폭 증대된 인천-마닐라 운수권도 대한항공·이스타·에어서울 등 대형항공사와 LCC 모두에게 배분되었다. 이로써 여행 수요와 상용수요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증편 기반을 마련하며 동남아-미국 환승축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올해 국제선 운항횟수가 ‘19년 대비 전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을 설정·증대 중이며, 이번 배분은 확보된 운수권의 조속한 증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”이라면서,

- “향후에도 국민의 항공 이동편의를 최우선으로, 신규노선 다변화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담당부서	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홍예표 (044-201-4211)
			주무관	조지예 (044-201-4210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붙임 1
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

순번	노선	배분받은 항공사	기존 운수권 보유 항공사
1	한-체코(객화)	아시아나항공 주3회	대한항공
2	인천-타슈켄트(여객)	제주항공 주1회 티웨이항공 주1회	아시아나,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
3	인천-구이린(여객)	제주항공 주4회 진에어 주3회	-
4	태국 이원5자유(타대륙)(객화)	에어인천 주2회	-
5	태국 이원5자유(아시아)(객화)	에어인천 주2회	시리우스
6	태국 중간5자유(객화)	에어인천 주2회	이스타, 시리우스
7	싱가포르 중간5자유(객화)	에어인천 주2회	대한항공, 에어인천, 시리우스
8	한-마닐라(여객)	대한항공 주2,582석 이스타 주1,330석 에어서울 주1,540석	대한항공, 아시아나, 제주항공, 티웨이, 에어프레미아, 에어로케이
9	한-러시아(여객)	이스타 주4회	대한항공, 아시아나, 제주항공, 에어로케이
10	한-카자흐스탄(인천-알마티 제외)(여객)	이스타 주4회	티웨이
11	중간5자유(멕시코)(객화)	에어인천 주3회	-
12	3/4/5자유(그리스)(여객)	아시아나 주2회	-
13	한-벨기에(3,4,5자유)(객화)	에어인천 주4회	아시아나, 시리우스
14	서울-북구3국(여객)	대한항공 주4회 아시아나 주2회	-
15	한-밀라노·로마 선택 2개(3/4/5자유)(화물)	에어인천 주6회	대한항공, 아시아나

붙임 2

항공의 자유 설명자료

구 분		내 용
제1자유 (영공통과)		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
제2자유 (기술착륙)		운송이외의 급유,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
제3자유		자국 영토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한국(자국) 몽골(상대국)
제4자유		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한국(자국) 몽골(상대국)
제5자유	이원 5자유	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의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한국(자국) 싱가포르(상대국) 제3국
	중간 5자유	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의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한국(자국) 제3국 싱가포르(상대국)

붙임 3

국제선 운수권 운항횟수 구분

-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을 위한 국가 간 항공협정 시 통상 주당 운항 횟수(주 00회)를 기준으로 각국 항공사의 운항 횟수를 관리

○ 다만, 여객 운수권 중 한국-마닐라 노선은 ‘좌석수’(주 00석)로 관리